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오즘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매체의 위력이 대단하다. 수적으로 많은 인터넷 매체가 등장했고 질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위세를 떨친 다양한 대안언론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흑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흑인신문이 등장했다.

그밖에도 유토피아주의자, 공동체주의자, 여성, 이민, 대중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반전론자들이 자기 집단을 대변하는 신문을 발행했다. 1960년대에는 학생조직인 SDS(민주사회를 위한 학생회)가 기관지를 발행했다. 다른 급진주의 조직은 월남전 반대 운동을 벌이며 신문을 냈다. 캐슬러는 이런 일군의 매체를 대안언론(dissident press)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왜 대안언론이 출현하는가? 리머는 주류언론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이론에 따르면 진리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개시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주류언론은 공개시장에 사회적 중요성

인터넷 언론에 미래가 있는가?

이 있는 의제(agenda)를 내놓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게 할 책임이 있다. 리머는 주류언론이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할 때 대안언론이 대두한다고 주장했다. 캐슬러도 주류언론 책임론에 동조했다. 그는 주류언론이 사상이나 집단이 있어 그 범주를 한정하는 한, 대안언론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안언론의 출현을 주류언론의 직무 태만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회 변화 자체가 새로운 대안언론의 출현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류언론은 당대의 보

편적인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 주류언론이 이런 본질적인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사회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대안언론이 출현하게 마련이다.

미국사회에서 발행된 많은 대안언론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스트라이트메터는 미국의 대안언론이 대체로 네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대안언론은 첫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기에 즉출(簇出)했다. 둘째, 대안언론은 대체로 단명(短命)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대다수 대안언론은 미국 생활에 토착이 전개되게 할 책임이 있다. 리머는 주류언론이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할 때 대안언론이 대두한다고 주장했다. 캐슬러도 주류언론 책임론에 동조했다. 그는 주류언론이 사상이나 집단이 있어 그 범주를 한정하는 한, 대안언론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대안언론이 어떤 운동을 대변할 때, 온건한 출판물이 그 사회에 존재하면 대안언론 역시 급진적 목소리의 톤을 낮추었다. 또한 노선을 온건주의로 바꾼 대안언론 가운데 경영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 한국사회는 언론사적(言論史的)으로 말하자면 대안언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이 공론장에서 주류언론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 언론학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주류언론이 사상이나 독자, 또는 의제를 한정해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아울러 일반 대중의 참여 욕구가 급진장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 인터넷의 발전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언론공간에 파고 들 수 있게 된 기술적 요인 등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 인터넷 대안언론에 미래가 있는가? 스트라이트메터의 분석을 조금 바꾸면 우리는 이에 관한 좋은 가설을 얻을 수 있다.

즉, 폭력주의를 견지한 대안언론은 단명을 면키 어려울 것이나 합리주의로 진화한 대안언론은 여전한 제도권 매체로 뿌리를 내릴 것이다.

품격을 갖춘 대안언론이 많이 나와 경영적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공론장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칼로스 시판 앞두고 쌀값 폭락 심각하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지난 3월 상품 20kg기준 월평균 쌀 도매가격은 8년3개월만에 3만5천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나 낮은 수준이다. 수확기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인 3월에도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초임기에 접어든 캘리포니아 산 칼로스 시판이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입 쌀 시판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추가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니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면세유 가격이 공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비료값도 9.8% 오른 판국에 쌀 판매가 하락으로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농가소득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 농사가 타격을 받을 경우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농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전남은 지역경제 한 축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쌀값 하락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시중에 유통될 칼로스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쌀값 하락 원인을 사전 불안심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추곡수매제 폐지때도 정부는 쌀값 하락폭이 5~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측은 턱없이 빗나갔다.

실현 가능한 쌀값 안정대책이 시급하다. 공공비축 물량을 시기가 아닌 목표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안이다. 농민들도 고곡미 생산으로 수입쌀과 차별화를 꾀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비자를 역시 오랜 유통과정을 거친 수입쌀 대신 농민들이 애써 수확한 우리 쌀 소비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든든한 농촌경제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도 영어·중국어 마을 만들자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 교육수장인 김진표 부총리가 부정적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로 해외 어학연수보다 훨씬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영어마을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한나라당 손학규 경기지사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비난 뿐 아니라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에 목말라 하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국가가 아닌 경기도가 자체예산으로 영어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영어마을을 조성할 때 교육비 외화유출을 막고 오히려 더 알찬 영어교육을 제공하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다니 일석삼조 아닌가.

외국어마을이 새로운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설립과 운영 주체는 자치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맡는 것도 고려될 것 같다.

드는가 하면 부산에선 아파트 단지에 이같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 교내에 기숙사형 영어체험공간을 두는 학교, 중국어로 수업하는 학교, 영어권 자매결연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교등 전국은 세계화와 글로벌 무한경쟁사회 속에서 이미 어학전장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광주·전남에도 하루빨리 이같은 영어마을이 탄생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지난 2월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이 영어마을을 조성키로 합의하고 연내 오픈을 목표로 일을 추진중이며 전남에서는 시·군마다 하나씩 교실 2~3개 크기의 '영어타운'을 만들 계획이라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울러 화동(華東)경제권에 인접한 전남의 장점을 십분 살려 중국어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되기를 바란다.

외국어마을이 새로운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설립과 운영 주체는 자치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맡는 것도 고려될 것 같다.

無等鼓

'1997년 4월 13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PGA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를 사활을 걸고 지금 분명 그날을 머리에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날은 스물 한살의 풋내기 흑인 청년 우즈가, 흑인선수는 커녕 흑인 캘리포니아도 찾아보기 어려운 오거스타를 감히 평정하고 일약 영웅으로 우뚝 선 날이다. 골프역사의 새장이 열린 날로 전세계 골퍼들이 흥분했다. 백악관에서 TV로 경기를 시청하던 클린턴도 바로 전화를 들이 축하를 했다.

우즈는 마스터스 마지막 라운드인 이날 몇번의 고비를 거쳐 전반기인을 이번호로 마쳤다. 후반 들어 아멘코너 11번, 13번 홀에서 버디, 14번도 버디를 잡으며 거침없이 치고 나갔다. 첫 우승은 정해졌고 최저타 스코어를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 파4의 18번홀, 가볍게 두눈에 성공한뒤 수많은 캘리더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리스로 올라섰다. 볼은 홀에서 6m 떨어진 지점에서 우즈를 기

다리고 있었다. 투 퍼트로 경기를 마치고 4라운드 총 270타의 경이적인 타수를 기록했다.

타이거는 그런 주변에 있던 아버지 일을 부둥켜 안았다. 심장수술후 거동조차 힘든 예순네 살의 얼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입원해 있던 LA의 UCLA 메디칼 센터를 빠져 나와 감격을 나누었다. 얼은 타이거가 "존경스럽다"고 표현했다. 골프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좋지않은 건강상태가 그를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86년 잭 니클라우스의 마스터스 우승을 캘리포니아주 사이프러스 집에서 TV로 지켜보며 마스터스 우승을 꿈꾸기 시작했다. 후반 들어 아멘코너 11번, 13번 홀에서 버디, 14번도 버디를 잡으며 거침없이 치고 나갔다. 첫 우승은 정해졌고 최저타 스코어를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 파4의 18번홀, 가볍게 두눈에 성공한뒤 수많은 캘리더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리스로 올라섰다. 볼은 홀에서 6m 떨어진 지점에서 우즈를 기

/기현호 체육·여론대체부장 khh@

타이거와 아버지



기고

오건탁



'4월은 가장 잔인달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려고 추어고 욕정을 뒤엎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토마스 엘리엇의 유명한 시 '황무지'의 첫 문장이다. 작가는 4월을 '가장 잔인달'이라 하며 현대인의 정신적 황폐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해냈다.

우리나라에서 4월은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 할 수 있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등이 울긋불긋 자연을 물들이며 눈부신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시기다.

반면 그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는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고통이 뒤따른다.

말하고 싶다. 광주 시민이라면 이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장이 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까운 미술관에 들러 작품과 함께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보자.

광주 시립미술관은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와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특색있는 기획전과 상설전 개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관람객이 없는 미술관은 그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30여명의 광주작가들이 대만 국립미술관과 대만 타이페이

휴일은 가족과 미술관에서

그라서 또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 5일제가 빠르게 정착해가면서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됐다. 이제 가정들은 과거처럼 6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다.

자녀와 함께 산과 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문화유적지를 찾아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도 한다.

또한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극장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선택은 어떤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혹 지금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는 나는 주저없이 "미술관을 찾아 나서라"고

말하고 싶다. 광주 시민이라면 이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장이 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까운 미술관에 들러 작품과 함께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보자.

광주 시립미술관은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와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특색있는 기획전과 상설전 개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관람객이 없는 미술관은 그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30여명의 광주작가들이 대만 국립미술관과 대만 타이페이

문화에 대해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은 물론 한 나라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광주시민 개개인의 관심이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어 낼 것이며, 문화수도 광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미술관을 찾는 일, 광주 시민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길 바란다.

<광주 시립미술관장>



예쁜 거위 새끼



할머니·아빠·엄마 그리고 나. '이상하게 네 덩치가 제일 크네. 털도 두터운데, 내 발바닥은 예쁜 주홍색이잖아. 역시 굵다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캐나다 기러기 새끼는 실은 기러기가 아니라 순수한 거위 알뿐이다.

아주 드문 현상이지만 게으른 거위가 어느 날 캐나다 기러기가 잠깐 쉬는 틈을 타 알 사이에 자기 알을 넣어 놓고 아예 잊어버린 것이다.

지금은 전혀 아는 척을 안 하니 수많은 거위 중에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유전자감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찾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우연히도 캐나다 기러기가 10개의 알을 품었는데 유일하게 이 알만 부화했다.

캐나다 기러기는 이후 자신의 귀한 새끼를 잘 키웠다. 동물행동학자 '로렌츠'의 이론처럼 새 새끼 중 일부는 맨 처음 본 대상을 자기 부모로 여기는데, 이런 현상을 각인(imprinting)이라고 한다.

거위새끼는 이런 각인과정을 거쳐 당연히 부모로 인식했지만 캐나다 기러기 부모가 그 무리들은 커가는 걸 보면 서 '아니, 누굴 닮았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뭇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면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오리새끼'에서 그 새끼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허구임이 증명되는 셈이다.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광주일보를 읽고

경광등 불법 부착 차량 강력 단속해야

현직 경찰관으로, 광주일보 3월 30일자 오피니언면에 실린 '경광등 긴급상황에서만 사용하기'이라는 독자 투고를 보고 쓴다. 승인 없이 응급차량 행세를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동참한다.

'긴급자동차'는 화재·수해 등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차량·응급환자 수송차량·화재진압 출동차량·전기·가스사업·민방위업무·도로응급 복구 등 지방경찰청장이 법으로 승인한 차량들이다.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 제 25조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앞지르기 금지 규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통체증 구

간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경비업체 차량·폐차재운반 등 도로보수차량·전기공사차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반 승용차까지 허가로 받고 있어 경광등을 설치, 긴급차량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며 효율적 도로이용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다만 경찰이 순찰차량에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순찰효과와 사건·사고 예방 및 긴급출동을 위한 것으로,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경찰도 불법적으로 경광등을 달고 긴급 차량 행세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다.

▲노종익·광주 북부경찰서 경찰관

광주일보를 읽고

범죄수법 상세보도 모방범죄 부추겨

최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디지털 잠금장치 해쇄-보안 장치 마련해야'라는 독자 투고를 보고 쓴다.

이 글은 최근 열쇠 분실 우려 등을 이유로 각 가정에서 디지털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디지털 잠금장치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방법까지, 여과없이 게재해 또다른 범죄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디지털 잠금장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해될 수도 있지만, 기존 디지털 잠금장치를 쓰고 있는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독자 투고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 모방 범죄가 없도록 해야 하는게 언론사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한용제갈·인터넷 독자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